

2

중앙후보일일소식지 3호

중앙선관위 검인필 3-3 중

장현일

혁 바꾸자
조합원의 힘으로!

조합원 혁명으로 어용노조의 수명연장시도 저지하자!!!

○ 어용노조 수명연장을 위한 마지막 꼼수 - 투,개표소 쪼개기

11.23일 선관위는 전국의 투,개표소를 698개로 확정했다. 추천단계에서부터 회사의 추천방해, 싸늘이 추천 등으로 민주후보진영의 선거참여를 방해하더니, 이제 마지막 꼼수로 투,개표소를 최대한 쪼개서 조합원들의 민심표출을 막으려는 것이다. 지난 선거에 비해 조합원수는 4천 여명이 줄었는데 투개표소는 489개에서 698개소로 43%나 늘린 것은 회사측의 압박과 감시를 효과적으로 돕기 위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 초등학생 반장선거보다 못한 kt노조선거?

이런 투표소 쪼개기의 결과로 심지어 5~10명 단위의 투표소가 70여 개소에 달하는 상황이다. 5명 단위 투표소가 5곳인데, 참관인을 중앙위원장 3후보 모두 신청한다면 선관위원과 참관인 등 4명이 지켜 보고 5명이 투표하는 웃지 못할 풍경도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꼼수에 조합원들도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 조합원은 전화를 통해 초등학교 반장선거도 이렇게 치졸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자신은 조합에 별 관심이 없었지만 이번 선거는 반드시 이런 작태를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 누가 조합원의 민심을 두려워하는지 밝혀졌다.

민주후보 측에서는 그 동안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사측개입의 효과적 차단을 위해 본부단위 통합개표를 주장해 왔다. 그런데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투표소를 더 잘게 나누어 버렸으니, 얼마나 조합원들의 진정한 민심을 두려워하고 있는지, 누구의 도움으로 당선되고자 하는지 그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다.

○ 쫓지 마세요. 이제는 조합원혁명입니다. 이제 저들이 쫓 때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고 했다. 바로 조합원의 마음이 천심이다. 아무리 억누르고 덮는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분노가 없어지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민심의 물길을 억지로 막으려는 시도는 오히려 그 독이 터져 흘러 넘치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이제 조합원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지난 서울시장선거에 보여졌듯이 변화의 민심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이제 저들이 쫓 때이다.

고과연봉제 , 팀성과급 폐지!!!
당기순이익 조합원배분 제도화!!!

장현일 선거대책본부
010-3066-0008/02-701-0070/F)02-704-4441
웹사이트 : ilovekt.org
후원계좌 : 006-21-0978-067(국민은행/류방상)